

동아열매 80호  
독자투고

# 대외활동 활동수기

선배들의 진짜 활동 후기!

디자인 | 이승우



아동학과 1750321  
김지혜

## 우리는 하나다! (Between) : 굿네이버스 성학대 예방 인형극



굿네이버스 성학대 예방 인형극

2019. 01. ~ 2019. 12.

굿네이버스 부산 동부지부 및 초등학교(매주 다른 초등학교)

### 선발과정

1차 서류와 2차 면접에 모두 합격해야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 비트윈 활동을 할 수 있다. 먼저, 1차 서류에서 키워드 3개를 중심으로 자신을 서술하는 문항, 이전에 대외활동을 했던 경험, 포부 및 다짐을 작성했다. 서류 합격 후, 부산대학교에서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전기수의 장들이고,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왜 많은 NGO단체 중 굿네이버스에 지원했는가?
2. 굿네이버스에 대해 아는대로 다 말해보라.
3. 들어가고 싶은 팀은 어디인가?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 지원계기

비트윈 11기는 총 5팀이다. CES팀, 모금기획팀, 미디어팀, 성학대 예방 인형극팀, 캠페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다섯 팀 중 성학대 예방 인형극 팀에 들어갔다. 아동학과라는 나의 전공과 관련 있다는 점과 내 작은 행동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다.

## 활동내용

인형극은 성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 인형극 활동을 진행한다. 시연을 하기 전에, 인형극 부스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고, 대본 숙지와 함께 인형 조작법을 익혔다. 인형극 뿐만 아니라 상황극 판넬을 보여주며 퀴즈를 내는 시간도 있다.

음성파일을 틀고 대사에 맞춰 인형으로 연기하며 조원과 호흡을 맞춰봤다. 생각보다 인형이 크고 무거워서 팔이 아팠다. 대사에 맞춰 연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계속 조원과 연습하다보니 어느새 능숙해졌다. 인형극 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 MT, 체육대회, 회식 등의 행사도 있다. 중간 보고 대회에서 1박 2일 동안 타 지역에 있는 굿네이버스 친구들을 만나 아동 권리에 대해서도 배웠다.

## 추천하고 싶은 사람 or 추천하고 싶은 이유

### 보람찬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은,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픈 사람

대학생활의 꽃은 대외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내활동도 중요하지만 대외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 친구들과 카페가고 음주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나고 보면 남는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대외활동을 하면 성취감을 얻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준비한 인형극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더불어 나의 작은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굿네이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굿네이버스 대학생 자원 봉사동아리에 들어와 이를 계기로 굿네이버스에 입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와 관련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추천한다.



## 활동 관련 팁이나 조언

굿네이버스 성학대예방 인형극 팀에 들어오면 초등학교에서 인형극 시연을 하기 전에 지부에서 인형 조작 연습을 한다. 처음 실전에 나가보면 긴장되고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를 하면 연극의 흐름이 끊길 수 있으니, 팀원들과의 연습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충분히연습 한 후에 시연을 하기 바란다.

## 활동을 통해 느낀점

인형극을 통해 성학대 예방을 한다는 점이 좋았다.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메시지(성학대 예방 중요성)가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퀴즈 또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성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한다. 대외활동을 통해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다. 인형극, 다른 학교 학우와 교류 등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더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해 뿌듯하다. 시간이 지나도 대외활동이 계속 생각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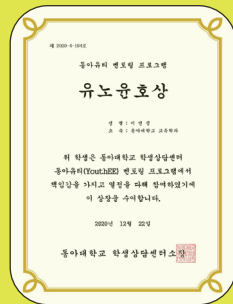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하고싶은 말

나는 오늘 소개한 활동까지 총 3개의 대외활동을 모두 수료했다. 대외활동 덕분에 대학생활이 보람차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대외활동을 해보지 않은 학우가 있다면, 대학 생활 동안 꼭 하나쯤은 해보길 추천한다.

## 너와 나 함께하는 동아 유티 멘토링 프로그램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동아 유티 멘토링



2020학년도 동아유티(YouthEE) 멘토링 프로그램(멘토)  
2020. 10. 04 09:00 ~ 2020. 12. 22 23:59  
승학캠퍼스 학생상담센터

### 선발과정

DECO 비교과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티 멘토링(멘토)를 신청하면, 이후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신다. 지원자들 중 약 10~25분 간의 간단한 면접을 통해 멘토를 선발한다. 면접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줌으로 진행했고 지원동기 및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셨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지원계기

평소 상담에 관심이 많아 진로 또한 상담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나는 아무런 상담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상담자로서의 경험을 얻기 위해 더불어 신입생 및 편입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멘토로 지원하였다.

### 활동내용

멘티와 상담을 하기 전에 멘토는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상담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하는지에 관해 배우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상담에 관심이 없거나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멘토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멘티와의 매칭은 담당 선생님께서 학과 및 관심분야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은 총 6회기로 구성되며 기본 50분을 전제로 한다. 각 회기별로 자신이 계획했던 활동을 진행해도 되지만, 멘티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1회기에서 6회기까지 약 1주일에 1번 멘티와의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각자 멘티와 합의해서 정하면 된다. 내용 또한 답이 정해져있다고기보다는 그때그때 멘티에게 필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상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겁고 우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친구와 친해지기 어려워요.', '과제를 자꾸 미루게 돼요.'처럼 누구나 겪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또한 상담이다. 나 또한 처음에는 멘티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멘티의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 또한 느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추천하고 싶은 사람 or 추천하고 싶은 이유

유티 멘토링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동아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다. 상담에 관심이 있든 없든, 아는 것이 많은 적든, 우선 참여하면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자신이 원하는 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멘토라고 해도 멘티가 토로하는 고민에 같은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는 본인에게도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 생활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다른 학생의 고민을 들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면, 유티 멘토링을 추천한다.

사실 대학생활을 하며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그 고민도 다양하다.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나 역시 진로에 고민이 많았고, 상담 경험이 없기에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뭐가 됐든 '해 보자.'하는 생각으로 유티 멘토링 멘토에 지원하였다. 그 결과 멘티를 만날 수 있었고 멘토링을 통해 서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유티

멘토링은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대학생살을 하며 한 번쯤 경험해봤으면 좋 겠다.

### 활동 관련 팁이나 조언

우선, 지원서의 내용은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에서는 간단히 지원한 이유와 상담을 통해 얻고 싶은 것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등에 관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유티 멘토링의 멘토 자리는 인기가 많아서 면접으로 많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에 긴장은 하지 않되, 자신만의 상담에 대한 가치관과 상담 계획을 정리하여 면접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멘토로 합격하게 되면, 멘티와의 멘토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50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하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상담자인 멘토는 멘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멘토링을 진행해야하며, 그것을 토대로 상담 내용을 멘티에게 맞게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멘티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다 보면, 50분이 훌쩍 지나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을 통해 느낀점

유티멘토링 멘토로 활동하며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상담의 길을 꿈꿔왔다면 멘토 경험을 해봄으로써 상담에 대한 나만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고, 멘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멘티의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멘티를 진정으로 응원하였고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선후배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티 멘토링을 통해 내 진로에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 좋 았고 멘티라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하고싶은 말

대학생일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으면 좋 겠다. 유티 멘토링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자신이 관심 있고 궁금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고민보다 일단 해보는 것이 후회없는 대학생살을 하는 꿀팁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간이 없다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말 하면 곧대 같지만 입학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봤기에 후회는 전혀 없다. 그렇기에 이 글을 보는 다른 학우들도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멋진 대학생살을 누리길 바란다.

영어영문학과 1802319  
여민지

## 야, 너두 할 수 있어!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2019(BIC Festival 2019) 통역 봉사자  
2019. 09. 06 ~ 2019. 09. 08(매월 9월 초, 3일간 진행)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홀(매년 장소 상이)

### 선발과정

자유 양식의 이력서 1부를 제출하는 것이 전부였다. 자기소개서 제출이나 외국어 면접과 같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하였다. 나는 이력서에 KSS, 영어 회화 동아리 등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했던 활동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매년 모집 인원이 상이하지만 2019년에는 최종적으로 영어 10명, 중어 3명, 일어 2명 정도가 선발되었다.

### 지원계기

2학년 재학 당시, 한창 대외활동을 알아보던 차에 학과 홈페이지에서 해당 통역 활동 모집공고를 발견했다. 저의 희망 진로가 외국어가 필수인 무역 직군이라 외국어 활용 능력으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고, 평소 영어를 좋아하고 자주 쓰려고 하는 편이었기도 하여 지원을 결심했다.

## 활동내용

OT와 통역 활동 모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진행이 되었다. 대외(봉사)활동이지만 소정의 급여(시간당 9000원)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먼저 근로계약을 작성 후 실내 시설을 숙지하고, 안내 교육을 받은 뒤에 활동복과 명찰을 배부받았다. 활동은 총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영어 3명,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고, 총 3팀으로 구성된다. 통역 활동은 크게 세 종류이다.

첫 번째, 이벤트 홀 통역. 가장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통역하며 보내게 된다. 홀 내에는 부스가 몇십 개씩 있는데,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컴퓨터나 핸드폰 등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전시가 있다. 부스를 따라 거닐며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불러주시기를 기다린다. 일반인과 스폰서가 게임플레이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저희 스태프가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기자회견(Press Meeting) 통역이다. 기자분이 오시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분께선 게임의 특성이나 캐릭터의 특징 등을 물어보곤 하셨는데, 게임개발자분이 답변하면 우리가 동시통역을 하고, 기자분이 실시간으로 노트북에 받아 적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 B2B 통역이다. B2B는 Business to Business라는 뜻으로, 이 행사에서는 게임 개발자와 게임회사 스폰서 간의 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을 일컫는 말이다. 해당 미팅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 앉아서 동시통역했다. 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통역했다.

## 추천하고 싶은 사람 or 추천하고 싶은 이유

외국어 또는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이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스펙도 쌓고, 돈도 버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활동 관련 팁이나 조언

통역 활동을 처음 시작하기에 막막하다면 이 활동처럼 영어면접이 없는 통역 활동으로 먼저 경험을 쌓은 뒤, 다른 통역 활동을 지원할 때 이를 이력으로 활용하여 어필하기를 추천한다.

## 활동을 통해 느낀점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사람을 대하는 업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 정신을 기를 수 있었고,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대처 능력 또한 키워졌다. 또한, 동시통역이 주 활동이기에 순발력과 영어 회화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이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대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 생겼다.

## 추가적으로 하고싶은 말

이 활동 이후 지스타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몇 차례의 통역 대외활동과 인턴십 등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이 좋은 이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게임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통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나 역시 게임에 대해 정말 무지했는데 지장 없이 활동하였다. 또, 활동기간이 학교 강의시간과 겹치는 경우 '대학장 인정 사유'로 공결을 신청하시면 처리 가능하다. 행사담당자분께 말씀드리면 학교 측으로 증빙서류(공문)를 보내주신다.

